

# 전남 산지유통 활성화 980억 받는다

농식품부, 참다래유통사업단 등 17곳 선정

전국 최다 배정…가격안정·물량확보 기대

전남이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자금을 전국에서 최다 배정받아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적정수준의 물량확보를 꾀할 수 있게 됐다.

20일 aT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해 전국 최다 배정받은 17곳은 전남이 98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기존 무안 전남서남부 채소조합 등 6개소, 신규 해남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 등 11개소 등 총 17개소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2010년 정부의 산지유통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전남 서남부채소조합과 한국참다래유통

사업단은 각각 120억원과 130억원을 배정 받았으며 청해진미원도전복주식회사 등 3개소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aT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전남이 그동안 산지유통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전남지역 농가의 가격안정과 적정수준의 물량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4100억원을 책정, 전국 567개 산지유통조직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2010년 산지유통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79개소와 신규 100개소, 총 179개소를 2011년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전남이 가장 많은 980억원을 받았

## ■ 전남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 현황 (단위:백만원)

시군	업체명	배정금액	평가
고흥	농업회사법인고흥군유통주식회사	5,000	보통
나주시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15,000	우수
무안	무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3,000	보통
무안	전남서남부채소농협	19,000	최우수
순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5,000	보통
신안	농업회사법인신안그린유통주식회사	12,000	우수
영광	농업회사법인영광군유통(주)	3,000	보통
원도	청해진미원도전복주식회사	1,000	우수
장성	삼계농협	1,000	보통
진도	농업회사법인(유)미르유통	2,000	보통
진도	서진산지유통영조합법인	1,000	신규
해남	땅끝농협	1,000	신규
해남	이래유통영조합법인	5,000	보통
해남	장월유통영조합법인	2,000	보통
해남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	13,000	최우수
회순	농업회사법인(유)순능특산물유통(주)	2,000	우수
회순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2,000	보통
나주시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3,000	(학교급식)
순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3,000	“
장성	삼계농협	1,000	“
	합계	99,000	

년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전남이 가장 많은 980억원을 받았

등 10품목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 ‘참살이 실습터’

### 중기청 7곳 지정

중소기업청은 ‘참살이(웰빙)’ 문화가 널리 퍼짐에 따라 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 ‘참살이 실습터’ 7개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실습터는 커피 바리스타, 소믈리에, 네일아티스트 등 모두 8개 참살이 관련 업종의 서비스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기청은 참가자들이 관련 창업을 하거나 대기업 등의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원자재가 10% 상승땐 산업생산비 1.2% 올라

### “절감형 산업구조 전환 절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10% 오르면 산업계 생산비는 평균 1.2%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오후 개최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국제 원자재 시황 분석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에너지 절감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작년 중반 이후 30% 이상 상승했고 특히 원유는 40% 이상 올라 생산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광물의 수입가격이 동시에 10% 오르면 전기·수도·가스 생산 비용은 5.9% 올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제조업은 1.7%, 광업은 1.0%, 건설업은 0.7% 등으로 생산비가 오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유럽시장  
도요타 제쳤다

2년 연속 브랜드 1위 질주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두 달 연속 도요타를 제치고 2년 연속 아시아 브랜드 1위를 꾸몄다.

20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한 달간 유럽에서 총 7만4341대(현대 4만4403대, 기아 2만9938대)를 판매, 렉스턴을 포함한 도요타(7만2232대)를 210대 차이로 앞섰다. 작년 아시아 브랜드 1위를 차지한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 도요타에 뒤졌으나, 2월부터 다시 앞서기 시작해 두 달 연속 도요타를 추월했다. 현대기아차는 1분기(1~3월) 누적 판매대수에서도 16만6187대(현대 10만2165대, 기아 6만4022대)로 도요타(16만7608대)를 1421대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이런 추세라면 누적 판매에서도 1~2달 새 도요타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상반기 중 신형 모닝, 하반기에 벨로스터, i40(이상 현대), K5, 프라이드 후속 모델(이상 기아) 등 5종의 신차 출시가 예고돼 있어 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KT, 2G 이동통신 서비스

6월 30일 종료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6월 30일 종료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계획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KT가 1997년 한국통신 프리텔 사설 시작한 2G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승인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KT는 지난 18일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이용자보호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회사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110만명에 달한다.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KT는 6월 30일까지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고 자사 3G나 경쟁사 2G 또는 3G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KT는 자사 3G 서비스로 이동하는 2G 가입자를 위해 24개월간 월 6000원씩(총 14만 4000원)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7000원 상당의 유심(USIM: 범용가입인증모듈)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책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김경인기자 kk@kwangju.co.kr

## 삼성, 전기료 걱정없는 양문형 냉장고 출시

삼성전자가 양문형 냉장고 인 ‘삼성 지펠 그랑데 스타일 840ℓ’의 소비 전력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신제품을 20일 출시했다.〈서진〉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셔와 최고급 진공 단열재를 적용한 841ℓ 제품은 월간 소비 전력이 33.7kWh, 820ℓ는 31.9kWh로, 800ℓ 대 고용량 제품 중 최저 소비전력을 실

현했다. 또 내부 선반과 도어의 수납공간을 극대화해 선반에 가로 길이가 긴 피자 상자나 갈비 세트 등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이 특징.

삼성전자는 이 제품과 함께 2011년형 지펠 마시모주기 등 신제품 4종도 출시했다. 가격은 249만~299만원.

/박정욱기자 jwpark@



코스피지수	2,169.91 (+47.23)
코스닥지수	532.25 (+5.63)
금리(국고채 3년)	3.74% (+0.03)
원·달러 환율	1,082.20원 (-9.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작년 402개사 21조원 달해

작년해 국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많이 늘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계 결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제조업체 402개사의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21조3308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6241억원(20.46%) 늘었다.

연구개발비는 사업보고서상 ‘연구 개발활동’에 기재된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를 더한 것이다.

삼성과 LG그룹 IT 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IFRS 적용 기업에서 R&D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한 23개사는 11조4200억원에서 14조2310억원으로 2조8110억원(24.61%), 기존 회계(K-GAAP)를 적용하는 379

개사는 6조2867억원에서 7조988억원으로 8131억원(12.93%) 증가했다. 절대적인 금액은 늘었지만, R&D 투자 열의를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상장사의 매출이 64조 원대에서 74조원대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는 사업보고서상 ‘연구 개발활동’에 기재된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를 더한 것이다.

두 회계를 합산하면 비율이 2.74%

에서 2.87%로 0.13%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1000원어치를 팔면 약 29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는 의미다.

회계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전제적으로 R&D 비중이 뛰면 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광주 등산장비의 자존심 백두산악

■ 지하철 : 김대중 컨벤션센터(3번출구)에서 공항방면 500m 위치  
■ 버스 : 19, 20, 38, 62, 73, 160, 1000 서식집구 정류장 하차  
(주)백두산악 광주아울렛점

문/의/전/화 ☎ (062) 267-2562  
♣ 기업체 판촉물 상담환경 ♣

## SINCE 1988

###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건적이나 덤핑건적은 놓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 - 7722